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	배포일시	2018. 7. 25.(수) / 총7매(본문3, 붙임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• 과장 김영한, 서기관 이창훈, 사무관 박정혁, 주무관 최필성 • ☎ (044) 201-3507, 3498	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5.(수) 17:30 이후 보도 가능	

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

- 9월까지 업역규제 개선, 적정공사비 등 로드맵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(진병준 위원장),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(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), 대한건설협회(유주현 회장), 대한전문건설협회(김영윤 회장)는,
 - 7월 25일(수)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‘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’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.
 - 정부는 6월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「건설산업 혁신방안」에서 건설기술·생산구조·시장질서·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,
 - 종합·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, 업종체계 개편,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와,
 - 적정임금제 도입,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해 9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밝힌바 있다.
 - 이번 노사정 선언식은 앞서 발표된 「건설산업 혁신방안」에 대한 건설 노사정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면서,
 - 9월로 예정된 혁신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.
- *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4.20일 발족한 건설산업혁신위원회(국토부 1차관, 업계·노동계·민간전문가 등) 이복남 위원장(서울대학교 교수)도 함께 참여

□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(별첨: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)

- ① 업역규제는 종합·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.
- ②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.
- ③ 공공공사 원가산정,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,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.
- ④ 건설근로자 등의 적정임금 확보, 체불방지,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면서,
- 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하였다.
- ⑥ 끝으로 금번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중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을 확인하였다.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”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부여하면서,

- “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오늘 혁신의 총론에 합의한 것처럼, 9월에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선언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들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중인 기술·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*을 참관하고,

* (기술인력) 해외 플랜트, 건축 BIM 과정 / (기능인력) 배관용접 과정

- 교육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이창훈 서기관(044-201-35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노사정은 건설산업의 전실한 성장과 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건설산업 참여 주체 모두의 발전을 위해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「건설산업 혁신방안(2018.6.28.)」의 실천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, 이를 건설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.

1. 노사정은 생산성 향상, 공정경쟁 촉진, 상생협력 활성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취지에 따라 업역·업종·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.
 - ① 이를 위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원칙적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.
 - ② 건설업종의 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용은 기술의 발전과 공법 융복합 추이를 반영하고 업종 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.
 - ③ 건설기업의 시공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, 기술·기능 자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2. 노사정은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제고와 건설 근로자,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건설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① 공공공사 원가산정 및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부족,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유발, 건설업체간 저가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.
 - ② 노사정은 건설산업 종사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체불 방지, 사회보장 강화, 안전관리 내실화 등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,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- ③ 노사정은 저가하도급,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.

3. 정부는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, 중소 종합·전문 건설기업의 보호 필요성, 건설 근로자의 근로조건, 재정소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8년 9월말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.

2018.7.25

한국노동조합총연맹
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
위원장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
위원장

대한건설협회
회장

대한전문건설협회
회장

국토교통부
장관

건설산업혁신위원회
위원장

- (설립배경) '70년대 해외진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등의 출연*으로 설립('78.5)된 비영리법인**

* 건설부, 건설협회, 건설공제조합, 4대 공사, 해외진출 건설업체 등

** 이사장: 대한건설협회 회장 / 원장: 전병국

- 현재는 건설기술자 법정·취업교육, 기능인력 양성 등에 주력

- (시설규모) 인천 본원(대지 19,601평, 건물 6,489평)

- 강의실 30실, 기능인력 전용 실습장, 기숙사, 운동장 등

* 기술자 교육을 위한 분원 2개소 운영중(강남: 490평, 강북: 160평)

- (주요사업) 건설기술자 법정교육, 청년 기술인 취업교육, 기능인력 양성과정, 외국 건설인력 교육 등 운영

- (법정교육) 건설기술진흥법,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실시

* 설계·시공, 건설사업관리, 품질관리과정 등으로 개원 이후 약 80만 명 실시

- (청년취업교육) 해외 플랜트, 미래친환경 건축, BIM 전문인력

- 주로 토목·건축학과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350시간(2~3월)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, Eng사 등 취업지원('08~, 10,300명 실시)

- (기능인력 양성)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목공, 특수용접, 건축설비 등 전문 기능인력 양성

* 5개월 700시간 과정으로 명예퇴직자 등의 전직·취업목적('08~, 6,400명)

- (외국 건설공무원 초청연수)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도모 등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('83~, KOICA·EDCF·기업위탁 등)

* 71개국 1,782명 실시

(아프리카 577, 아시아 669, 중동 385, 아메리카 53, 오세아니아 13, 유럽 85)

1. 추진배경

- 건설산업은 부족한 기술력과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격 경쟁력과 사업물량 확대 등으로 극복하면서 외형을 키워왔으나,
 - SOC 투자 감소, 개도국의 추격 등 외부 위기로 인이 심화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면적 산업혁신이 시급
-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, 고부가가치 일자리산업으로 체질개선 추진

2. 주요내용 → 4대 혁신방안 추진을 통한 5대 건설강국 도약

- ① 기술 혁신: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**글로벌 산업**
 - 공공주도의 대규모 R&D투자를 확대하고, Eng 경쟁력 강화,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, 스마트 인프라시장 활성화 등 추진
 - ② 생산구조 혁신: '간막이'와 '다단계'가 없는 **고효율 산업**
 - 종합·전문간 업역제한* 개선, 원청(종합) 직접시공 활성화,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등을 통해 시공단계를 단축하고 상호경쟁을 촉진
 - * 원도급은 종합업체, 하도급은 전문업체에만 시공 자격을 부여('76~)
 - ③ 시장질서 혁신: 부실·불법·부조리가 없는 **공정 산업**
 - 부실·페이퍼 컴퍼니 퇴출, 저가하도급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공 공사 견실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책정* 및 발주제도 개선도 병행
 - * 적정임금·사회보험료·안전관리비 등 보장 강화, 표준 공기 마련 등
 - ④ 일자리 혁신 :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**젊은 산업**
 - 취업연계형 교육 활성화, 고용우수업체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 등을 청년인재 유입을 촉진하면서, 건설기술 스타트업 창업 지원
- ⇒ 건설업계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업역 개편방안과 적정 공사비 책정방안은 '18.9월중 구체적 로드맵 발표

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식 계획

□ 행사 개요

○ 일시 : 7.25(수) 16:00~17:30

○ 장소 : 건설기술교육원(인천 남동구)

* 전문·기능인력 양성 및 기술자 법정교육을 위한 교육훈련기관

○ 참석자 :

(국토부) 장관, 건설정책국장 등

(노동계)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, 민노총 건설산업연맹
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

(업 계) 건설협회 유주현 회장, 전문건설협회 김영운 회장

(혁신위) 이복남 위원장

□ 세부 일정계획

시 간		내 용	비 고
16:00~16:05	(5')	① 참석자 환담	원장실(본관 2층)
16:05~16:25	(20')	② 노사정 선언식	회의실(본관 2층)
16:25~16:40	(15')	③ 교육훈련 참관 - 해외플랜트→ BIM→ 배관용접 과정	실습실 이동
16:40~17:30	(50')	④ 청년취업교육 훈련생과의 대화	복지관 2층